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51호 현대불교

29

2011년 8월 31일(음 8월 3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일체 만물만생을 내 생명같이 아꼐 줄 알아야

왜 기도하지 말고 관하라 하시지요

문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 코너를 열심히 챙겨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기독교의 주님이나 불교의 부처님이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스님께서서는 왜 기도하지 말고 관하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 내가 무식한 말을 또 해야 되겠군요. 큰 연자나 뿔이 돌아갈 때 그 뿔들 가운데에 심봉이 딱 꽂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핵심이나 마한가집니다. 심봉이 꽂혀 있는데 그 심봉으로 인해서 전부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오고, 모든 게 다 갈려 나오죠. 이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재료가 항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 보십시오. 어떤 거 넣어서 갈려 나올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핵심 자체는 갈려 나오든 안 갈려 나오든 그냥, 핵심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 만가지들 다 갈아 내면서도 끄떡없이 주어져 있는 자체가, 그게 부처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부처, '일체제물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자성부처, 자성불이다 이렇게 하고, 기독교나 가톨릭교에서는 '주여' 하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마음의 그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뚱이는 기독교나 가톨릭교에선 종이라고 하고 이 불교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의 역량의 차원에 따라서 모두 각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모두, 즉 기복으로 모두 이끌고 가는 겁니다, 기복으로.

어느 곳에서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은 자기한테 있지 따 데서 찾으면 아주 멍니다. 자기한테서 자기를 못 찾으면, 기독교인들은 자기한테서 자기가 주님을 못 찾으면 아니 됩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자기 자성불은 자성불대로, 생명의 근본이 불이니까. 주인이 옳으나, 불이 옳으나. 불은 아까의 그 심봉 자체를 불이라고 하고, 그 뿔들과 심봉과 다 같이 돌아가는 거는 주인공입니다. 공해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한 가지로서 우리가 일상

생활을 다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꿰뚫어서 알아야 이게 감응이 되고, 알게 되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별써, 하늘이 무너져서 쪼개져서 가루가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심곳이 웃을 겁니다, 아마. 심곳이 웃을 거예요. 하늘을 받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곳이 웃어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꽃을 한 송이 들었을 때에 가슴이 심곳이 웃었듯이.

그래서 기도란 말을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상대가 꼭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그냥 관하는 겁니다. 이걸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다 맡겨 놓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 체험하고 나가는 게, 그냥 실험 속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행선입니다. 행선. 일하면서 하는 게 행선, 누워서 하는 게 좌선, 서서 하는 게 입선, 앉아서 하는 게 좌선. 이것이 다 그냥 같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게 그냥 참선이라고 합니다. 생활 참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다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파도 말합니다. 이게 이 공작지가 털 익어서 할 때는 공작지 뿌리를 그냥 놔두고 익히든지, 뿌리를 그냥 끊어 버리고선 익히려면 그냥 말라 버립니다.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작지하고 공알쟁이하고요. 익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가 맡겨서 뿌리가 성성하도록 하면서 이 공작

지가 익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래서 이 공작지가 그냥 시들고 그 뿌리가 말라 들어가면, 익지도 않아서 마르면 얼른 죽지도 않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걸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뿌리에 물 주는 거와 같습니다. 뿌리에 물을 주면 그 잎새도, 즉 말하자면 열매도 싱싱하게 익고 익어서 말라야 이것이 푹 건드리기만 해도 탁 떨어지죠. 몸뚱이 몸뚱이대로 떨어지고 의식은 의식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손들도 속 썩이지 않고, 나도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하고 이렇게 해어만이 공덕이 되지 아니, 남한테 이익도 못 주면서, 내 몸뚱이한테도 이익을 못 주면서 어찌 공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주인은 영원한 거고 내 몸뚱이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 몸뚱이는 항상 끌려다니는 시자와 같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자를 끌고 다니는 주인에게 그 시자는 항상 그저 '당신만이 나를 잘,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 있어.' 그게 아주 돼야 됩니다. 옛날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달구지를 끌고 가는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지 아니, 달구지를 치는데 소가 어떻게 감니까? 그런데 기복은 모두 달구지를 치는 겁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온통 아단법석들을 하는 것이 바로 달구지를 치는 격입니다. 진짜 실천하는 데에 그 소를 치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열심히 실천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애고 애고 생각나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알 바가 있을 테니까. 참 묘한 도랍니다. 이게, 아주 광대 무변한 도랍니다.

마음으로도 안 가본 곳은 갈 수 없는데...

문 스님께서 범문 중에 마음으로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러셔서 해 보니까 진짜 마음으로 집에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익히 살던 집이고 이미 가 봤던 곳이니까 생각만 하면 갈 수 있는데 가 보지 않은 곳은 마음으로도 갈 수가 없는 것 아니지요?

답 마음으로 그 집을, 항상 보던 테니까 금방 빛보다 더 빠르게 가 볼 수 있죠. 이 마음은 내가 없어서 지구 바깥으로도 훨씬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세계의 나부터, 주인공을 믿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보게 되고 스스로 듣게 되고 스스로 알게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씩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그렇게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예전에 외국으로 범회를 하러 갔다가 만난 어떤 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딜 가면 좋다 그래서 "나도 거기 갔다 왔어." 그랬죠. 농담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언제 갔다 왔느냐 그래요. 그래서 "나, 벌써 당신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나도 그 너머도 갔다 왔고 집을 산비탈에다 매달아서 지어 놓은 것도 맛있고, 또 그 아래 내려가면 물이 흐르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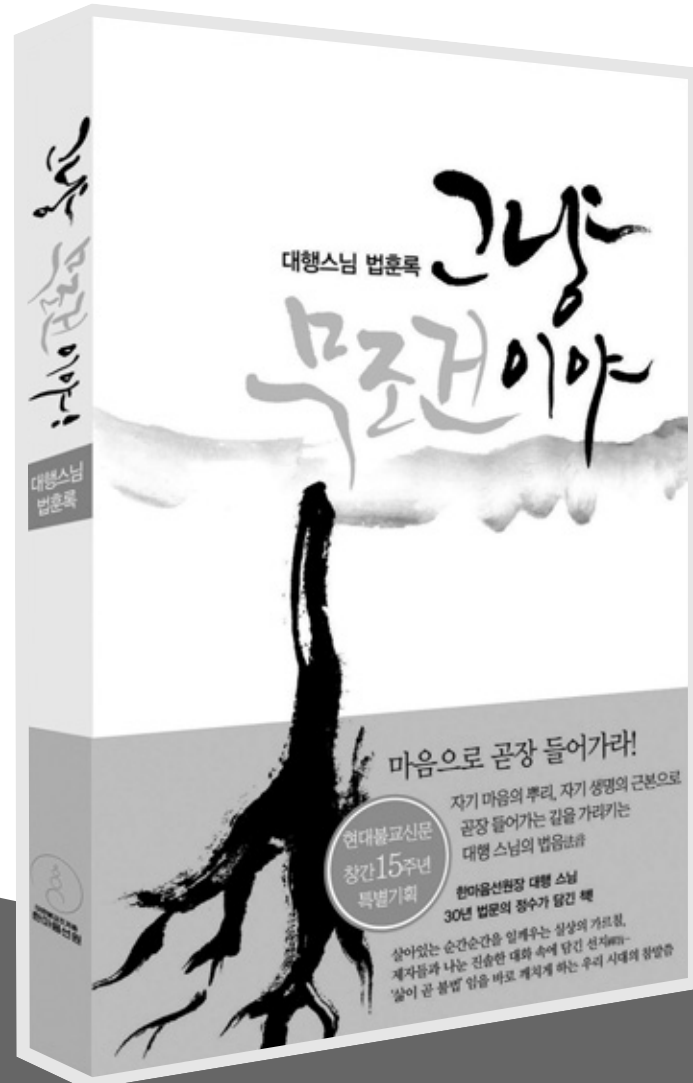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부조건의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믿으세요

29면에서 계속

나무가 그냥 구성지게 한 벌판이 다 이렇게 동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참 좋고, 그 가는 길이 좋고 그렇더라." 이랬더니, 자기가 아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나 어떻게 갔다 왔느냐고, 벌써 갔다 왔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기가 탁 죽 잡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고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아는 거는 그분이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서 공부야 아니다. 이런 과정이다. 안다고, 본다고 하지 마라." 하고선 얘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디를 이렇게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달을 내가 구상해서 본다 이럴 때 그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볼 수 있다는 거, 전체 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말로만 듣지 말고 실천을 자기가 해 봐야 되고 지금 세상에는 앉아서 뛰어다니서 서서 뛰는 사람은 전쟁에도 못 이겨요. 정처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살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가 그래요. 나에게 전체 근본이 직결돼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지구의 주인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냥 근본자리에 직결돼 있단니까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전기 가설이 돼 있는 자가발전소나 한가지죠. 전력이 나가는 자가발전소 그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이 되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보는 거, 듣는 거 또는 남의 속을 알 수 있는 거, 과거를 알 수 있는 거, 현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업보가 있는 모든 것을 탐할 수 있고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 다섯 가지를 범바퀴라고 그러니까. 범바퀴, 불바퀴, 물바퀴, 불바퀴는 지혜바퀴, 불바퀴는, 즉 말하자면 공생할 수 있는, 불생불멸 하는 그런 바퀴. 또 우리 지금 '범바퀴' 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생각을 하면 한테 떨어지지 않는, 실천에 옮기는 그런 범바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공부는 정말이지 실천하는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면 아니 되는 그런 공부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물질세계에서 문명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모든 게 발달이 됐지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학과 무신과학이 동시에 같이, 유무가 같이 한테 합쳐서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이 세상이 원만하고 평화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놓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요

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그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이익이 되

는 건지요?

답) 아주 영항 가치가 훌륭합니다. 지금 내 한 마음 주인공 이 자체는 내가 사랑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나를 진화시켰고 형성시켜 왔습니다. 자기 주인공이. 그러니까 마음먹는 대로 자기를 리드해 갑니다. 발전시켜 가고, 또는 항상 이익을 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똥이 급하면 똥 누러 가게 하는 것도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대신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자는 것도 대신 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가 대신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이 자기를 위해서 이끌어 갑니다.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위해서 이끌어 갑니다.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아무리 선지식들이,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많다 하더라도 못한 자기만은 못할 겁니다. 바로 자기부터 자기

애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체험해 보신다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체험해 보신다면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신계의 50%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자기한테 그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력이 있고 모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약합니다.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남한테 발길에 차이고도 어쩔 수가 없이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력의 세계, 그것을 맛을 보시려면 열심히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좀더 진짜로,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아닐까요?

답) 언제가 제가 산으로 돌아갈 때 잠마가 들어서 비가 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맑은 저녁에 말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물고 발로 끌고 가요. 난 별거 다 봤어요. 그래서 '참 이상스럽다.' 그랬더니, 그걸 끌어다가 물 바깥으로 이만치 올려다가 가지에다가, 땅 풀숲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곤 또 가더니 또 가지고 와요. 그거를 팔팔을 끼고 몇 시간을 앉아서 본 겁니다. '야, 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저러는데, 나는 부모의 그 가슴 타는 걸 아랑곳도 하지 않고 죽었나 살았나 얼마나 속을 썩이면서 이렇게 나와서 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거를 몇 시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게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가는 도중에 벌써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끌어난 자리가 물이 딱 들어서 그냥 쏠리는 거죠. 뭐, 그거를 봤을 때 제

는 그때 근 십여 년 동안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습니다. 밥이 어디 있으며,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찻술도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소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나는 죽어야 나를 본다고 그래서 아예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죽게 돼서 거기 쓰러진 것이 어디 쓰러졌느냐 하면 소풍에다 그냥 들이박고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쳐서 다니니까, 지쳐서 쓰러졌다가 인제 정신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쥐란 놈이 말입니다. 참 내! 고구미를 말입니다. 요만한 고구미를 두 발로다가 요렇게 이마에 대고 말입니다. 강충강충 뛰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누워 정신없다가 정신이 나 가지고 눈만 겨우 이렇게 뜨고서 보는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하얗든 기운이 없어서 크게 웃진 않았지만 그 희열이 넘친 입이 이만큼 벌어지면서 기운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참, 아무 생각도 없이 웃으면서, 몸이 불어서 그냥 놀러가지도 않는데, 별안간에 입이 이만큼 벌어지면서 웃음이 나는 게, 거기서 그냥 웃음이 나면서 참이 생기면서 그냥 기운이 난 겁니다.

그런데 날 보더니 고구미를 거기다 툭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예요. 강충강충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먹고 물을 마시고, 물을 아홉 모금을 마셨는데, 한 모금이 세 모금이고 세 모금이 아홉 모금이고 아홉 모금이 세 모금이고 또 세 모금이 아홉 모금이라. 이 시공을 초월한 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체 만물만생을 내가 내 생명같이 아낀다면 어떠한 생명이라도 날 구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이유

문)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들은 자기 자신한테 놓으면 없어지지만 어떤 문제들은 자기 자신한테 놔도 계속해서 질기게 안됩니다. 왜 그런 건지요?

답) 본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불(佛)이에요. 불! 영원한 생명이 한테 합쳐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게 불력(佛力)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불바퀴하고 내 이 마음 핵심하고 직결이 돼 있어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그 현상이 나와요.

이 마음과 마음이 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놔두는 때는, 갖다가 날으면 그냥 타 버리는 현상이에요. 큰 불바퀴에 조그만 불덩어리를 갖다 붙어도 그냥 한 불이 돼 버리고 뭐든지 갖다 붙어도 타 버리게 마련이거든요. 완전히 믿는다면 안되는 것도 법이예요.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믿고 다시금 돌려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못난 자기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의 바로 내 마음의 주인부터 믿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기고 물려서지 마십시오. 그게 참선의 도리입니다.

네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의 전화부터 놓으십시오. 내 마음속의 바로 내 마음의 주인부터 믿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기고 물려서지 마십시오. 그게 참선의 도리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이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스님, 이렇게 이렇게 이랬어요." 하고서 전화를 했을 때에 "알았어!"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미국과 한국이 한 찰나의 길입니다. 한 찰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시면서, 보이지 않는 데 나투시면서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에게는 약사로 응해 주시고, 또는 어떠한 애고에 휘달리는 사람에게는 관세음으로서 응해 주시고, 명이 짧은 사람은 칠성부처로 응해 주시고, 정신이 맑지 못해서 두뇌가 모두 물리가 터지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촉으로 나투어 주시고, 미래의 모든 내 정신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미타로 나투어 주시고, 또는 죽어서 좋은 데로 못 가서 빌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지장으로 나뉘어 주셨어요. 이 모두가 한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일을 잘나잘나 응해 주신다는

주인을 믿어야죠. 허공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그리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이 무심의 도리라는 것은 묘하면서도 광대무변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중용으로 굴리면서 한다고 그래서 바로 팔 수레공법입니다. 이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핵심적인 그 자체 즉, 우선적으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맡기고 거기서 실험을 해 보라 이겁니다. 마음으로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일체 만물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자유인이 됩시다.

동물의 마음도 우리와 같을 텐데...

문) 요즘은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집에서 잘 기르던 동물들도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러는 그런 동물들을 거둬서 살려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물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

생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일체 만물만생은 다 부모 형제가 있고 다 저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하면 다 주는구나. 거미도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속을 다 빼 주고 곁집 데기만 남아서 휘휘 바람에 날리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바글바글 기어오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엄마 지금 시원하게 그네 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지금 시원하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네 뛰고.

그뿐이니까, 개미 떼는 어떻게요. 이 말이 이어지지 않아도 거기서 이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는 이 마음의 귀로 들을 때는 그냥 연발로 그렇게 침을 쫓고 갑니다. 침을 쫓고 가면 연발로 그 침 쫓는 채로 행진을 합니다. 참 무서운 도리라고 봐요. 그러면 모든 게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거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뻔도 그렇죠. 한 부부가 살다가 만약에 독살을 당했다거나 이 런다면 그 부부가 하얗게 테두리를 하고, 정말이예요. 하얗게 테두리를 하고 복수하느라고 눈이 벌개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으로서 이 도리를 등한시하시겠습니까? 한번은 산에서 제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저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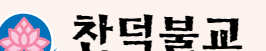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빛이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